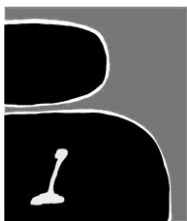


믿음 지혜 실천	<h1>Buddhanara</h1> <p>부 다 나 라 (불 국 사)</p>	Faith Wisdom Action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첫째주 일요일 11시 : 초하루 인등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시 : 야외법회 (Eckert's Farm) -10 월; 전법기도 법회 -11 월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10월 둘째주 일요일: 야외법회 (Fort Yargo State Park)
 10시에 제주사우나 주차장에서 만나서 함께 야외법회 장소인 공원으로 출발.
 11월 둘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Pinckneyvill Park 에 있는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Room #5

부다나라 한국 후원회 - (붓다회)

10 월 23 일 일요일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붓다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법문: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혜충 큰스님
 주제: 해외포교 지난 10년 앞으로 다가올 준비된 10년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9am. (매주 토요일 9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Every Tuesday 6:30 pm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Evening Chenting & Meditation
 Intensive Meditation: Fourth Tuesday of the Month (매달 넷째주 화요일 저녁) 7:00 PM - 10:00 PM

이달의 법구경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은
 무지한 소처럼 늙어가고,
 몸은 늙고 지혜는 자라지 않는다네.

If a man tries not to learn he grows old just
 like an Ox!
 His body indeed grows old but his wisdom
 does not grow.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응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2011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국책 프로젝트로 탄생한 고려대장경
[고려대장경의 어제_1] 고려대장경, 그 천년의 역사를 찾아서

2011 년, 금년은 고려 초조대장경 판각 1000 년이 되는 해이다.

역사 속에서는 범부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졌다.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가 하루 온종일 기계부품을 만들고 있을 무렵 그의 친구와 가족들이 한결같이 “그 쇠덩어리가 하늘을 날 수 있겠어?”, “그래 날아서 무엇을 할 건데” 등으로 편잔을 주었지만 그 노력의 덕분으로 항공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거란과 몽고에 의한 전란 속에서 고려대장경을 만들 당시에 수많은 고려인들이 한 말이나 생각도 라이트 형제가 처했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그 전란 속에서 고려인들이 왜 대장경을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 생각의 중심에는 ‘목판대장경이 우리나라에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 관계로부터 출발한다.

대장경(Tripitaka)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경장(經藏), 계율 및 그것을 해설한 율장(律藏), 경(經)의 주석문헌인 논장(論藏)을 집대성한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이 언어로, 문자로 이어져 오다가 종이에서 다시 목판으로 전환된 것이 바로 대장경이다.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활동했던 인도지역의 언어와 문자를 한자로 바꾼 놓은 것이 바로 ‘한역(漢譯)대장경’이다.

그 시작은 중국의 북송시대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개보대장경(蜀版, 開寶勅版)』(971~983 년)이 세계 최초의 대장경이다. 고려에서는 먼저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1011~1087 년)이 만들어졌는데 세계 랭킹 2 위의 기록이다. 그 뒤 대각국사 의천스님에 의해 『고려 교장(敎藏)』(일명 續藏經: 1091~1101 년)이 조성되었으나, 1232 년 몽고의 2 차 침략 때 대구 팔공산 부인사에 목판본으로 보관된 「초조대장경」과 마찬가지로 모두 불타는 비운을 맞았다. 그러나 고려는 고종 23 년에 다시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일명 팔만대장경: 1236~1251 년)을 조성하였다. 이 세 가지를 묶어 ‘고려대장경’이라 부른다. 또한 고려대장경의 정수, 교장(敎藏)이 그동안 대장경에 이어 조성한 속편 대장경이라는 의미로 일본인 학자가 이름붙인 ‘속장경’으로 불린 것이다.

그러나 ‘속장경’이라는 말은 근거가 없을뿐더러 전통적인 삼장에 주석을 단 별도의 장(藏)을 더해 사장(四藏)으로 늘리고자 했던 의천국사의 의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었다. 5 천 여 권의 주석서를 목판에 새긴 의천국사의 작업은 그동안 대장경을 두고 연구된 한문 주석서들의 결집이자 불교와 한자 문화권이 접촉해서 만들어진 지적 유산의 총체를 정리한 것이다. 2005 년부터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도 ‘교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고려대장경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짐으로써 대장경 앞에 고려라는 국가명칭을 붙인 것이다. 거란대장경·금(金)대장경 등이 있듯이 조선시대에 대장경을 만들었으면 조선대장경이 되는 것과 같다. 조선왕조가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정하고 대장경은 더 이상 만들지 않았지만, 서원과 향교를 통해 행한 교육제도 등에서 삼국시대 이래 고려에서 한 단계 발전된 목판·인쇄기술 등이 그대로 전승되었다.

2011 년 판각 천년이 된 「초조대장경」은 1010 년 거란의 침략으로 전라도 나주까지 피난을 갔다가 개경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고려 현종이 신하들과 함께 대장경 조성을 발원하였다는 점과 그 당시 음력 2 월 연등회와 11 월 팔관회를 여는 국가의례와 풍습을 감안하면, 연등회 기간이었던 1011 년 음력 2 월 보름을 기해 처음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중기의 학자 이규보 선생이 지은 『대장각판군신기고문』(大藏刻板君臣祈告文)에 의하면, “현종 2 년에 대장경을 조성하게 했다. 대장경을 찍어내는 판을 만들고 또 그것이 망가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로 망가지면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대장경을 제작하게 된 목적과 배경이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조성된 고려대장경에는 종교적 가치와 더불어 문화의 전파와 호국, 화합이라는 사상적이고 역사적인 내용 그리고 판각과 목판인쇄술, 장경판전의 건축인 요소까지 오늘날 인문·학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

그 제작 기간만 총 76 년간, 분량이 총 5,048 여권(570 여개 합)의 판본(板本)으로 된 「초조대장경」의 조성은 첫째, 거란 침략에 맞서 종교적인 응집력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다. 둘째, 중국에서도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때마다 대장경을 조성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장경 판각을 통해 문화대국으로서 고려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하고자 했다. 셋째로는 선조에 대한 추선(追善)과 고비(考妣)에 대한 명복을 기원한 의미를 갖고 있다. 당시 최고의 선진 문물인 불교경전을 수입하여 대장경을 조성한 것은 오늘날 인공위성 발사와도 같이 종이제조, 인쇄기술, 장정(제본) 등 당대의

기술력이 총 집약된 국책 프로젝트로서 고려 500년 동안의 최대 사업이었으며, 학술적으로는 ‘백과사전’ 또는 ‘문화총서’를 출판하는 국가적인 문화 사업이었다.

이와 같이 대장경 조성을 시작한 고려는 전쟁을 말미암아 황폐해진 국가를 재건하고, 고통 받는 국민을 치유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대장경 조성사업을 통해 일자리 만들기를 추진했던 것이다. 안타깝게도 「초조대장경」 목판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재조대장경」을 바탕으로 대장경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의 인력과 자재가 들어갔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경판을 만들 수 있는 목재로 40cm 정도 굵기의 통나무 한 개에서 대략 6 판 정도의 경판을 만들 수 있다면, 8만여 장의 경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13,000 개 이상의 통나무가 필요하다. 이를 4인 1조의 방식으로 2~3일에 한 번씩 벌채된 나무를 각판장까지 등목 이동시킬 때 필요한 연인원이 약 10만 명이 넘을 것이다. 그리고 경판 16만장(양면세김)을 만들기 위한 필사 작업으로 일일평균 최대 10장을 필사할 경우에도 16만 명이 참여하게 된다. 여기에 필사작업에 필요한 종이(韓紙)를 한 사람이 하루에 50장 정도를 생산할 때 연인원이 1만 명쯤 된다. 여기서 문제는 판각이다. 가장 많이 시간이 요구되는 작업으로서 최고 기술자 1명이 연간 20 판 정도임으로 16만장을 새기려면 8천명의 기술자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대장경 조성사업에는 건축업, 운반업, 제재업, 금속가공업, 벌목업, 풀·떡·옷칠 등 생산업자, 음식업 등 수많은 관련 업종이 참여하고, 새겨진 대장경판을 교정하는 인원과 이를 보조하는 인력까지 합하면 실제 제작에 동원된 사람과 재정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명품 대장경, 천년의 비밀을 말한다

[고려대장경의 어제_2] 고려대장경, 그 천년의 역사를 찾아서

중국이 대장경을 처음 만들었지만, 고려가 만든 「초조대장경」은 체계적인 구성과 정확한 교정 그리고 뛰어난 판각 기술을 바탕으로 직접 제작함으로써 대장경 최고의 명품(名品) 지위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개보대장경」에 있는 송나라의 연호가 「초조대장경」에서는 사라지고, 경판에는 계선(界線)이 새겨졌고, 경전상의 문맥을 바로잡기 위해 글자를 더 첨가하는 등 보완과 수정의 과정을 거쳐 원본보다 더 훌륭한 대장경을 만들려고 고려인들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기우렸는지는 현재 남아 있는 「초조대장경」 인경본(印經本)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실제 「초조대장경」 인출 진본(眞本)을 보면, 종이에 남은 얼룩이나 변색 정도가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천년 전에 찍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교한 서체와 먹선(墨線)이 그대로 살아있다. 또한 「재조대장경」에 없는 ‘어제비장전(御製秘藏證)’이라는 판화를 싣고 있어 미술사적으로도 고려의 회화기법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초조대장경」은 최근 일부 인사들이 「개보대장경」을 그대로 빼긴 것으로 평가절하한 내용이 아니라, 고려시대 최고의 필사와 목판기술과 더불어 완전한 교감(矯監)작업으로 이루어진 ‘명품 대장경’이다. 대장경은 기본적으로 경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편찬 작업을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큰 변화가 없지만, 서지적(書誌的) 사항이나 글자 모양 등에서 보면, 「개보대장경」 등 기초자료로 삼은 대장경에 대한 수정·보충과 같은 교정 작업이 실제적으로 진행되었다. 「개보대장경」의 『불보행집경』 19권과 「초조대장경」 25권을 비교하더라도 전체적인 자형(글꼴)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만큼 고려의 독창적인 교감작업이 수반된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 6월, 「고려대장경 천년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미국 버클리대학교 루이스 랭카스터 명예교수가 “고려가 초조대장경을 목판에 판각한 것은 그것이 담고 있던 경전 내용을 뛰어넘어 당대 인쇄술의 핵심 기술 도입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평가한 바와 같이 그 당시 인쇄매체의 일대 혁신을 불러일으킨 「초조대장경」은 문화재적으로도

「재조대장경」과의 A와 A°라는 관계가 아니라 제작 시기와 방식에서 구별되는 천년의 문화유산이다. 고려가 몽고와의 전란 속에서 현존 최고의 목판대장경인 고려 「재조대장경」을 다시 조성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미 「초조대장경」을 제작해 본 경험이 있는 고려인들의 축적된 기술적 역량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고려대장경의 글씨를 본 조선시대 명필 추사 김정희 선생은 “이는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마치 신선이 내려와서 쓴 것 같다”고 감탄해 마지않았다. 또한 오자나 탈자가 거의 없는 고려대장경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고려의 승려 의천(義天)국사, 수기(守其)대사와 같은 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 재조대장경의 총 글자 수는 5200만 자로



▲ 초조대장경 인경본<사진_고려대장경연구소 제공>

지금까지 남아 있는 목판이 8 만 1258 판이고, 무게는 약 280 톤에 이른다. 이 대장경판을 모두 쌓으면 그 높이가 무려 3200m로 백두산보다 훨씬 높다. 경판을 모두 옆으로 늘어 놓으면 약 60km에 달한다.

현존하는 고려대장경의 인경본과 경판(經板)이 천년동안 지탱해 올 수 있었던 비밀은 먼저 ‘천년이 간다’는 종이(高麗紙)의 특성과 먹 인쇄기술과 3년 이상 삭힌 밀가루풀 등으로 만드는 장정(제본) 기술에 있다. 또한 경판의 경우는 목판의 제작공정과 보관장소의 과학적인 건립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두루마리(卷子本) 형식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742년)과 『일본서기』 등의 기록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6세기 말~7세기경부터 종이(韓紙)를 독자적으로 개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살아있는 종이’로 불리는 한지가 천년을 견뎌낸 이유에 대해 정동찬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사연구실장은 한지 제조공정에 콩대, 메밀대, 지푸라기 등으로 만든 잣물 사용과 닥풀(황촉규 Hibiscue mamihot.L)이라는 독특한 식물성 풀의 사용, 당류를 빼내는 천연 표백작업과 한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침(搗砧)이라는 마무리 공정을 세계 최초로 고안한 우리 조상들의 가공 기술력에 있다고 했다. 여기에다 자생밀로 만든 밀가루 풀을 3~10년 동안 삭힌 다음에 사용함으로써 0.3~0.5mm 안팎의 두루마리 제본에 있어 점성(粘性)을 높였기 때문이다. 콩풀은 주로 중국에서 사용하였으며, 일본은 절첩식(책 형태)의 장정(裝幀)을 하고 있다.

나무로 된 경판이 약 800년간 보존이 가능했던 것은 조선시대를 비롯하여 산불, 전쟁 등으로부터 이를 다 막아낸 해인사 승려들의 노력, 그리고 인쇄한 경판을 소금물로 씻어내어 음지에서 잘 건조시키는 등 정성을 기우려온 까닭이다. 여기에다 사용에 적당한 원목을 벌채하여 우선 바닷물에 담가 두었다가 필요할 때 제재한 후 찌거나 그대로 음지에서 건조하여 표면에 대패질하고 글자를 새겨 넣은 경판의 제작과정도 중요한 대목이다.

경판은 뒤틀리지 않게 양끝과 각목(角木)으로 마구리를 붙였는데, 손잡이가 되는 이 마구리 부분은 두껍고 글씨를 새긴 경판 부분은 얇은데 이는 판과 판사이가 쌓이면서 서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 또 다른 비결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대장경판의 재질을 전자현미경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산벚나무와 돌배나무가 대부분이고 자작나무는 거의 없었다. 지금까지 경판이 자작나무(樺, 白樺)로 제작되었다는 설이 바뀌게 되었다.

세계 최고의 목판이 현존할 수 있는 한결같은 비결로는 ‘잘 말린 나무를 소재로 경판을 만들었고, 이를 사용하면서 잘 씻고 말리는 관리법’과 더불어 경판의 보관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건물의 위치 선정과 건립, 건물배치와 좌향, 건물구조와 창호처리, 판가(板架)구조, 경판배열 등의 측면에서 자연 통풍이 잘되고 일조량도 적당하며 목판을 보존하는데 최적의 조건인 항습, 항온 등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고도의 건축기술이 가미된 장경판전을 만들어 보관했기에 가능했다.

2011년은 고려 초조대장경이 판각된 지 오롯이 천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 지식 문화사에서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이 천년을 맞은 것이다. 미국 UCLA 대학교 로버트 버스웰 교수가 「2001년 고려대장경 천년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13세기에 편찬된 팔만대장경은 고려 왕조가 이룩한 가장 위대한 문화적 성취이다. 이는 1960년대 미국의 달 탐사사업에 비견할 만한 것으로 대장경 편찬사업은 당시 국가적으로 엄청난 자금과 인력이 수반됐다”는 논문을 발표한 바와 같이 고려대장경 조성사업이 고려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중국의 연호를 쓰지 않고 당당히 고려국(高麗國)이라는 이름과 또 황제만이 쓸 수 있었던 봉칙(奉勅)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대장경판 제작으로부터 자주 독립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자 한 것이다.

그 후 중국 등 여러 국가들과 대장경 교류를 추진하였다. 특히 일본은 1389년부터 1509년 사이에 무려 83회나 “대장경을 달라고 간청하였다”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으로 볼 때 이 시기를 기해 고려대장경 인경본이 거의 다 일본으로 인출된 후로, 지금까지 일본 학계와 종교계에 공개를 하지 않았던 고려 천년의 비장(秘藏), 「초조대장경」 인경본이 2004년에 일본 남선사 등지와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었다. 이로써 ‘디지털 대장경’이라는 새로운 영역도 우리들의 손으로 만들게 되었다. 2011년 고려대장경 천년의 해를 기하여 ‘천년의 가르침을 모아 천년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어’했던 고려 대각국사 의천스님의 뜻이나 뜻 고려인들이 열망했던 꿈을 우리 후손들이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 불교포커스에서 발췌 -

유네스코, 한국불교문화재 세계유산 등재 협력

조계종과 유네스코가 연동회를 비롯한 한국불교 문화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지난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자승스님은 “한국은 5천년 역사와 더불어 1천 700년의 불교문화를 간직하고 있다”면서 “유무형 여러 한국 문화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연동회등 여러 유무형의 한국불교 전통문화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코바 사무총장은 “유네스코는 현대화로 인해 사라지고는 유무형 문화재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며, 한국 불교가 문화재 보존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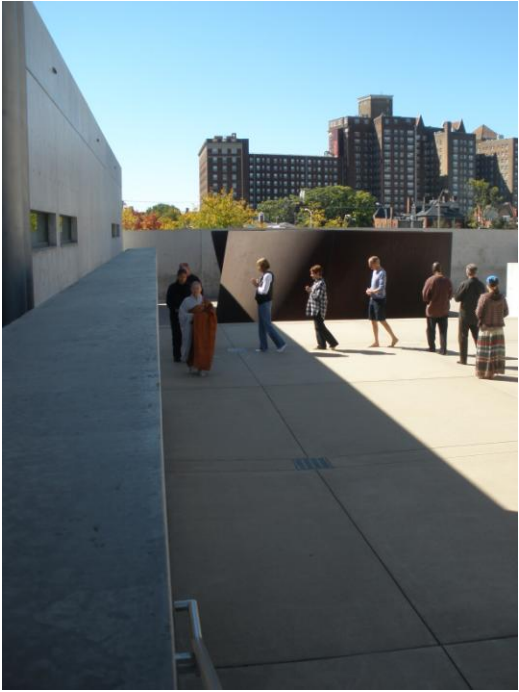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한국불교 문화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협력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또 부처님 탄생성지인 네팔 룸비니 복원사업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자승스님은 지난 8월 조계사에서 가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만남을 이야기 한 뒤 “반총장이 유엔과 유네스코, 불교 국가들이 룸비니 복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룸비니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며 “저도 방문길에 동참하기로 약속했다”며 룸비니 성역화 사업의 협력 의사를 밝혔다.

보코바 사무총장은 “내년에 반 총장과 함께 네팔을 방문해 네팔 정부와 복원사업에 협의할 계획”이라면서 “내년에 언제 룸비니에 갈지 미리 알려주면 반 총장과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다”며 룸비니 복원에 동참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유네스코 본부에서는 사찰음식 체험 행사인 ‘생명과 평화를 위한 공양’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 등 조계종 대표단 스님과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 부부, 유네스코에 주재 중인 각국 대사, 박홍신 주프랑스 대사,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사찰음식 체험에는 대안스님이 이끄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마련한 퓨전 사찰음식이 한상차림으로 차려졌다. ‘삼색연근찜’ ‘송이장아찌’ ‘곰취쌈밥’ ‘녹두전’ 등 화려하게 차려진 사찰음식을 맛본 각국 대사들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러나 전통 사찰의 발우공양 형식이 아닌 전채, 주요리, 후식 등의 순서로 음식이 제공되어 발우공양에 담긴 불가의 음식에 대한 정신문화를 전하는 데는 아쉬움을 남겼다. 사찰음식을 준비한 사찰음식 전문가 대안스님은 “한국의 사찰에서 보통 스님들은 일식삼찬의 소박한 음식을 먹지만 오늘은 정갈하고 대접받는 느낌을 받도록 한국 전통의 한상 차림으로 음식을 차렸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 사찰음식을 처음 맛봤다는 엘레노라 미트로파노바 노르웨이 대사는 “굉장히 조화로운 음식이었고 맛도 있었으며, 마음까지 가득 채워주었다”면서 “기회가 되면 한국을 방문해 템플스테이도 체험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Reflections of the Buddha (부처님의 화현들)





세인트루이스 다운타운 에 위치한 “The Pulitzer Foundation for the Arts” 미술관에서는 9 월 9 일부터 내년 3 월 10 일까지 “부처님의 화현들- Reflections of the Buddha” 전시회가 6 개월간에 걸쳐서 열린다. 프리처 협회와 워싱턴대학이 스폰서를 한 이번 행사는 Pulitzer Foundation 이 20 주년을 기념해서 약 2 년간 준비한 것으로 그 첫번째 행사로 다양한 문화속에서 성장한 다양한 형태의 불교 모습을 “부처님의 화현들- Reflections of the Buddha”란 타이틀로 전시및 강연을 기획했다. 18 세기의 아프가니스탄,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네팔, 파키스타, 티벳의 불교미술로 22 작품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각 나라불교 미술을 통한 불교이해뿐만 아니라 세인트루이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나라의 불교를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체험의 장도 마련했다. 즉 Reflections of the Buddha 의 다리역할을 할 다양한 불교형태의 참선을 경험할 수 있는 Meditation Serie(참선시리즈)와 Question & Answer(불교질의 응답)를 통해 각 나라의 불교 수행법을 경험하고 불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에 10 월 1 일 부터는 한국불교 선을 시작으로 조동선, 비파사나 선, 상좌선, 일본선, 중국선 등을 통해 각 나라의 불교를 접할 수 있다. Meditation Series 의 첫번째 강의는 10 월 1 일 부다나라 템플(불국사)

주지 선각스님 지도하에 오전 10 시 30 분부터 Pulitzer Foundation 강연회장 건물에서 약 70 여명의 현지인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약 1 시간 10 분에 걸쳐 강연과 참선 그리로 행선을 통해 조금이나마 한국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 이번 강연에 참가한 참가자들 중에서는 한국불교에 관심을 표명하며 매주 2 번있는 부다나라 수행 프로그램에 참석하기를 희망했다. 선각 스님은 내년 1 월에도 Buddhism Question & Answer (불교 질의 응답)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참석자들에게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이다.

애틀랜타 부다나라 Garage Sale (바자회) 이모저모





애틀랜타 부다나라 법회는 매달 한 달에 한번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에서 법회를 가진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신도님들 모두의 염원중 단연 으뜸은 우리들도 기도하고 정진할 수 있는 법당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일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들도 법당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이성욱 거사님의 제안으로 시작되어서 신도님들 모두의 마음을 합친 “부다나라 바자회”로 꽃을 피워냈습니다. 팔 물품들을 몇 달에 걸쳐 신도님들이 발품을 팔며 모으기도 했고 도한 기증도 받았습니다. 10월 1일 9시부터 시작한 바자회는 해는 낮지만 가을 날씨라 아침기온이 좀 쌀쌀한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바자회 장소는 애틀랜타에서 큰 한국 슈퍼중 하나인 남대문 파머스 마켓이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도착해 보니 이성욱 거사님이 모은 옷가지를 진열할 가판대등 정말 많은 준비를 벌써 해 놓으셨습니다. 이호임 보살님, 정민이 아버지와 백승화 거사님, 그리고 우리 6살짜리 동구까지도 물건 하나라도 더 팔기위해 아침 9시부터 열심히

뛰었습니다. 동구는 인형옷을 입고 바자회 선전했고 이때 동구가 입고 선전했던 인형옷은 3분에 팔렸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 매상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이러다 대박 나는거 아닌가 했는데, 차츰 시간이 지나니깐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더니 오후 3시쯤에는 거의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서 4시쯤 조기종영을 하였습니다. 아침에는 좀 추웠지만 오후가 되니 날씨가 너무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가족 나들이 간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아님 우리의 마케팅전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다음엔 좀 더 제대로 해보아겠습니다. 중간에 동구 어머니, 성락거사님, 황혜경 원장님 그리고 몇몇 보살님들이 양손가득 식사와 간식을 준비해 오시고 같이 힘을 보태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간혹 물건을 보러오신 한국분들 중에는 어느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는 거냐고 하면서 절에서는 바자회를 하는 것을 처음봤다고 의아해 하기도 했습니다. 경기가 안좋은 것에 비해도 그래도 200불 정도 모았으니 어느정도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돈이나마 부다나라 법당마련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략을 새로짜서 내년 봄에도 바자회를 또 하자는 쪽으로 의기투합했습니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서 다시한번 부다나라 신도님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소중한 시간들뿐만 아니라 불교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시간 들이도 했습니다.

무영 김동하 합장

연잎차의 효능

연잎차를 한 모금 마시면 입 안 가득 연잎 특유의 향기가 차의 맛을 즐기게 해주고, 연잎차를 오래도록 마시면 늙지를 앓고 흰머리가 검게 되며, 함유하고 있는 성분 또한 다양하고 약효성이 강하여 어혈(瘀血)을 제거하고 건강식으로 좋다고 한다.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하고 기분을 좋게하며, 특히 하혈(下血)을 멈추게 하고 피를 맑게 해준다. 연잎차는 녹차의 그것보다 10 배 정도의 매우 풍부하고 맑은 향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맛은 비위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달짝지근하며, 색 또한 선명하다.

연꽃은 사찰이나 찻집에서 향차로 쓰이는데 스님들이 연차(蓮茶)를 마시는 것은 연이 마음을 진정(鎮靜)시키는 효과가 있어 도를 닦는데 도움이 될 정도로 연차는 예로부터 심신(心身)을 맑게 하고, 정력(精力)을 돋우는 미용차로 전해오고 있다. 연잎차는 땀이 많이 났을 때 갈증(渴症)을 다스리는 효능이 있을 뿐 아니라 더위에 지친 심신을 도와준다. 또 피를 맑게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입 냄새와 니코틴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하엽(荷葉)은 그 성질은 치우침이 없으며, 맛은 쓴 것이며 독이 없다고 하였고, 그 효능으로는 혈리(血痢: 피가 섞여 나오는 이질)를 치료하고 태아(胎兒)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악혈(惡血: 나쁜 피)을 제거한다고 하였으니 모든 이에 두루 이용할 수 있지만 특히 여성에게 더욱 이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잎차의 효능과 효과

1.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불면증(不眠症)에도 좋다.
2. 피를 맑게 하여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입 냄새와 니코틴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다.
3. 갈증(渴症)을 해소하는 기능이 있어 숙취(宿醉)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여행지에서 물이 바뀌고 고생할 때도 마시면 좋다.

4. 연잎차에는 로에메린, 루시페린, 비타민 C, 비타민 B12 등 기초비타민, 아스파라긴산, 아르기닌, 티로산 등 아미노산, 생리활성재배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성분 등과 같은 여러 영양소(營養素)를 포함하고 있어 당뇨병(糖尿病) 등 성인병(成人病)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카페인이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5. 연잎차를 장복(長服)하여 체중(體重)이 감소되면 원래대로 쉽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
6. 항산화(抗酸化) 효과 : 세포(細胞)의 노화(老化)와 암(癌) 등을 유발하는 유해산소(有害酸素)를 60% 정도 제거(除去)해주는 항산화 효과가 있다.
7. 혈압강하(血壓降下) 작용 : 혈압을 내리는 작용을 하는 생리활성성분(플라보노이드 화합물)도 다량 함유되어 있다.
8. AIDS 억제 효과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바이러스인 HIV의 활동을 돕는 효소 프로테아제(Protease) 생성(生成)을 40% 가량 억제(抑制)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최근 연구결과 밝혀졌다.
9. 치매예방(癡呆豫防) 효과 : 치매 예방 등에 좋은 성분인 레시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10. 자양강장(滋養強壯) 효과 : 남성에게는 정기(精氣)를 굳게 하며, 여성에게 있어서는 피부미용(皮膚美容), 생리(生理)문제(問題)를 이롭게 해주는 성분이 있다.
11. 뛰어난 지혈작용(止血作用) : 월경(月經) 과다(過多)와 산후(産後)의 출혈(出血), 부정출혈(不定出血)이 있는 여성과 토혈(吐血), 코피, 혈변(血便)에도 효과적이다.

■ 연잎차를 달이는 방법

1. 물 1.5ℓ에 찻잎을 약 2 스푼 정도를 넣고 물을 끓인 후 색이 우러나면 은근한 불로 좀 더 끓인 후 마신다.

■ 연잎차를 우려서 마시는 법

전통적인 연잎차의 향을 느끼려면 생수나 지하수 등을 끓인 물로 다기를 데운 다음에 1인당 약 2~3g 정도의 차를 다관에 넣고 70~80℃ 정도의 물을 부은 후 2~3분 동안 우려낸 후 음용한다. 향을 음미하면서 마시며, 3~4회 우려 마셔도 된다.

- * 차게 마시거나 꿀을 넣어도 좋다.
- * 식후에 보리차 대용으로 마셔도 좋다.
- * 차를 우려는 시간이 길어지면 차의 색이 붉어질 수 있으나 연잎 본래의 속성이므로 상관없다.

☺ 건강에 좋은 연잎차 판매합니다. ☺

애틀랜타 부다나라 성락 권혁만 거사님이 정성스럽게 키우시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드신 연잎차 320 개 이상을 애틀랜타 부다나라 창건불사 기금마련에 보태라고 시주해 주셨습니다. 연잎차는 인건비만 계산된 가격인 \$10.00 에 판매를 합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불국사)로 연락 바랍니다. 조지아주, 미주리주 이외의 주에서 연잎차 6 개이상 구입시에 발송비용은 부다나라가 부담합니다.

법회소식 NEWS

- 조지아주 부다나라 정기 법회는 부다나라 (불국사) 사찰이 조지아주에 창립될 때까지 매달 둘째주 일요일에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계신 불자님들과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주지 선각 스님을 모시고 정기 법회를 가집니다. 법회장소는 Pinckneyville Park 에 있는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Room # 5 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정기법회는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입니다. 주소는 4650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Norcross, GA 30071 입니다. 구글에 찍으면 4650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Doraville, GA 30360 으로 나오는데 꼭 Norcross 로 오셔야 됩니다.
- 조지아주 애틀랜타 둘째주 일요일 10 월 9 일 야외 법회는 아주 큰 호수들과 아름다운 Trail 들과 보트 선착장 까지 있어서 일요일 근교 나들이 장소로서는 최고로 꼽을 만한 Fort Yargo State Park 에서 가집니다.
주요 일정 시간 및 행사: 오전 11 시 ~ 오전 12 시 : 야외법회
오전 12 시 ~ 오후 1 시 : 점심공양
오후 1 시 ~ 오후 3 시 : 각종 퀴즈 및 게임, 가족 운동회
Fort Yargo State Park 는 차 한대 당 5 볼씩 주차료로 받기 때문에 일단 Duluth 제주 사우나 주차장에서 10 시 00 에 모여서 다함께 출발합니다.
Duluth 제주 사우나 가는 방법: (I-85 North 방향: Exit 104 에서 Pleasant Hill Rd 로 좌회전 한 뒤 Mall Blvd 로 우회전하셔서 들어가시면 왼쪽에 나옵니다.).
- 세인트루이스 셋째주 일요일 10 월 16 일 야외법회는 Eckert's Farm 에서 가집니다. 아침 10 시에 부다나라에서 출발합니다. 늦어도 11 시까지는 애커스 농장 주차장 마차타는 슈퍼 앞에 모두 모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장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동산과 농장에서 수확한 각종 과일이나 채소등도 살 수 있는 슈퍼도 있습니다. Apple Picking 이 끝나면 근교에 있는 뷔페 식당에서 점심식사가 있습니다..
- 11 월 부터는 화염경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보현행원품” 강의를 시작합니다. 11 월 첫회 법회에서는 보현행원품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을 하니 신도님들은 빠지지 마시고 법회에 참석해 주십시오 .
- 12 월 18 일에는 동지 법회가 세인트루이스 법당에서 있습니다. 이번겨울 모두 건강하게 겨울을 나기위한 기도와 점심에는 팔죽공양이 있습니다.
- 10 월 23 일 오후 2 시에는 한국불교역사 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부다나라 한국 후원회 10 주년 기념행사가 “해외포교 지난 10 년 앞으로 다가올 준비된 10 년”이란 주제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혜총큰스님의 법문과 10 년동안 후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운 많은 내외귀빈을 모시고 법회를 가집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하신 전원에게는 부다나라 후원회(붓다회)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드립니다. 미국에 계셔서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미국에서 11 월 법회때 기념품을 드립니다. 모두들 부다나라 후원회 10 주년을 축하해 주십시오.
- 2012 년 달력불사를 기다립니다. 조계종출판사에서 달력 300 부를 프린트하는 비용 및 신도님 가정으로 발송비용 등을 합치면 제반비용이 약 \$1,000.00 정도가 소요 됩니다.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에 있고 매달 동참비는 \$10.00 입니다. 인등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부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토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부처님 불사는 \$10,000(일천만원)이고, 한 평 불사는 한 평에 \$1,080.00 (백 팔 만원)입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한 평 불사 및 인등기도 불사 :

2012 년 달력불사: 무량화 문봉순, 관음성 강상숙, 여래성 김선영, 반야 Greg Kilper.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불 합 시 다.